

기억 아닌 추억

이유준

1학년 때부터 6학년이 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다. 우린 4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매일 만나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지만 가장 마음이 통하는 내 친구 “우승현”에 대해 추억하고 싶어 이 일기를 쓴다.

1학년 꼬맹이 시절 우리는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며 장난치다가 다툰 적이 있었다. 그 계기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서로 잘 몰랐던 그때에는 투닥투닥 많이 다뤘다. 그러면서 정이 들었다. 비슷한 점이 많고 대화가 잘되는 친구였다.

우리는 축구를 사랑했다. 매일 만나 지난밤 열렸던 해외 축구 경기 브리핑을 시작으로 때론 감독이나 코치가 되어 전술을 짜고 노트에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 종이 공을 만들어 축구를 했다.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친구와 나는 골 장면을 재현하며 유명한 축구 선수 흉내를 내면서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가끔 선생님들께 종이 공을 뺏기고 혼날 때도 있었지만 그 또한 즐거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3학년 스포츠 데이 행사에서 친구와 내가 줄넘기 대회에서 우승한 일이다. 우리가 양 끝에서 줄을 돌리고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뛰는데 다시 생각해도 엄청나게 소름 돋는다. 줄넘기 돌리기 합이 너무 잘 맞은 우리는 반 친구들이 모두 들어와서 뛰게 했다. 반 친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5학년 때 구기 대회에서는 회장인 그 친구와 체육부장인 내가 합심해서 발야구, 피구 등 모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 우승 트로피와 MVP를 같이 들었다. 운동을 하면서 친구와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구가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유준아, 나 영국으로 유학 간다.” 이 한마디에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걸 꼭 참았다. 친구의 말을 들으며 표정을 살폈다. 아쉬움과 괴로움이 교차한 듯한 표정이었다.

우린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이다. 직감적으로 친구가 아주 힘들게 결정했구나를 느꼈다. 부모님이 결정한 일인지 친구가 스스로 결정한 일인지 물어봤다. 처음엔 부모님께서 제안을 했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역시 내 친구 멋지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였으면 그렇게 결정했을까? 아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 슬픔도 잠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 보기로 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아 볼까, 아니면 엄마한테 나도 유학 가고 싶다고 졸라 볼까, 여러 생각 끝에 나는 친구가 떠나

는 9월 3일 전까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만나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풋살장에 가서 신나게 축구를 하고 또 공부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영국에 있는 기숙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에게 나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문화적인 차이와 인종 차별을 이겨 내는 법과 외롭고 두려움을 없애는 법 등을 필기해서 친구에게 줬다. 출국 전날까지도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내년 여름 방학 때 영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나는 친구와 꼭 만나 토트넘 축구 경기를 같이 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꼭 보러 나온다는 친구 말에 손가락 도장을 꼭꼭 찍었다.

친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아 내 할 일 열심히 하며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슬픔과 응원하는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보고 싶다. 내 친구!